

지역 소식통

완주, 주거복지문화대상
주거안정지원부문 대상

완주군이 '2022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주거안정지원부문 기관대상을 수상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아름다운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단체, 개인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5회째 이어오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수상에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취약계층 생활민원처리(기동반)운영 △공공주택관리자 협조체계 구축 및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기반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행정의 체감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유공기관 선정

김제시가 2022년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코로나19예방접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해 증중 및 사망 예방 도모 기여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보건소 예방접종실 및 읍·면·동 콜센터 운영, 읍·면·동 마을(717개) 전담책임제를 운영하며 대상자 1:1 안내, 전화상담, 문자발송, 사전예약 지원 등 60세 이상 접종률 향상에 기여하여 도내 접종률 1위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60개)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전용 단복장을 개설하여 지속 관리를 하였으며, 관내 의료진이 없는 감염취약시설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매도시 완도군
가뭄 피해극복 생수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7일 제한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인 완도군을 돕기 위한 생수 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기부된 생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285개의 섬이 있는 도서지역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오다 저수지, 지하수, 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됨에 따라 제한급수가 확대되는 등 완도군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 따라 김제시는 시정 직원들과 일부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기부 등 모금 운동을 통해 기부된 생수 2리터 1만4,000여 병을 트럭을 이용해 완도군에 전달했다.

직원대상 1인당 생수 1박스 모금운동을 전개, 1,000여명이 넘는 김제시정 직원들이 참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해 역대 최대규모 투자 유치 '쾌거'

김제 지평선산단 분양율 99.7% 달성 두산 오늘 착공... 2024년 가동 목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사상초유의 경기침체 위기속에서도 김제시 역대 최대규모인 3,9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전반기 4대 도시로 응비하는 김제를 목표로 전략적·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9개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지평선산단단지 분양율 99.7%를 달성했다.

지난 2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팻푸드 기업인 로얄캐닌의 210억원 규모 증설투자를 시작으로 지난 7월에는 김제지평선산단단지에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인 (주)두산과 투자규모 688억원, 신규고용 110명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며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김제 소재 농기

계 생산기업인 (유)웅진기계와 산업기계·첨단부품 전문 대기업인 LS엘트론(주)의 신규 합작법인 랜드솔루션(주) 유치로 첨단 농기계 산업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등 지평선산단내에 총 9개 기업(28만88㎡)으로부터 3,933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신규고용은 463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제시 최초로 유치한 대기업인 (주)두산은 28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관기업의 투자유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 뒤에는 정성주 시장의 일관 기업 민원 처리제 시행 등 강력한 의지와 투자기업의



김제시가 사상초유의 경기침체 위기속에서도 김제시 역대 최대규모인 3,9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일감 등과 투자·분양계약 체결식

Needs 이전에 파악해 해결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정성주 시장은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곧 바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로 연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고밀도, 고물가, 고관율로 자칫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지역경

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평선산단단지의 실질적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동 부지(건축중, 미착공)에 대한 투자이행과 연계되어 곧 바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로 연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고밀도, 고물가, 고관율로 자칫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지역경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우수'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2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사업관리, 인력관리, 기관관리, 조직운영, 충실성 등 5개 항목 17개 평가지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도지사 표창 및 '2024년 사업비 추가 지원'이라는 큰 부상을 받았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총 16개 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 가정간병부문 지원사업, 청년마을건강지원사업)으로 총 17억3백만원으로 26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86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 재난지원금, 495개 경로당서 집중 지급

오늘부터 이틀간... 경로당 없는 마을 57곳, 이장 자택서 지급

완주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주민 불편 해소와 신속 지급 차원에 서 집중지급 기간을 정해 495개 경로당에서 지급하는 과정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돼 주민들과 소상공인, 지역업체들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민선 8기 유희태 군정 출범 이후 주민 우선과 '현장 중심'의 '혁신 행정'을 강조해온 만큼 주민 편의와 신속 지급을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집중지급 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 책임 아래 실·과·소와 협력해 495개소의 경로당에서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 나

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그동안 기초단체가 행정복지센터와 인구 밀집지의 주요 장소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온 관례를 깨고 마을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온 경로당을 활용하는 혁신에 나서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완주군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 57개소에 대해서는 이장 자택에서 지급하는 등 주민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재난지원금 수령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여분에 한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말을 제외

하고 평일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또 재난지원금의 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지역을 완주군으로 묶고 대형마트와 유휴·사행성업종 등은 제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유희태 군수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안정도 중요한 만큼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하는 대책을 세웠다"며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도 덜어주는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약 4만4,913가구에 9만7,111명이 해당된다.

신청인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자신이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세대주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의사능력이 등 취약계층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27일 김제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제2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전시회 '삶과 기억, 기록으로 남다'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정성주 김제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시민의 삶·기억, 기록으로 남다'

김제시, 내년 1월 20일까지 시민기록물 전시회 신공·교월동 기록화, 시민기록물 수집전 등 구성

김제시가 2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김제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제2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전시회 '삶과 기억, 기록으로 남다'를 연다.

이 전시회는 올해 김제시 시민기록물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로써 신공동, 교월동 기록화 성과와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 응모작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김제시 신공동, 교월동 기록화 전시 △시민기록물 수집전 2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기록화 전시는 김제역과 함께 생긴 신공동과 역사문화 중심지인 교월동의 이야기를 주민 인터뷰와 기록물로 풀어냈다.

또한 시민기록물 수집전은 제2회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으로 수집된 37명의 기록을 일부 선별하여 학교, 생

활 등 6가지 소주제로 분류·전시했다.

27일 개막 행사에는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과 김제시 기록화 유공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기록화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의 의미를 더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김제 기록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김제 시민기록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 삶의 흔적이 담긴 기록이 지역의 역사적 기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신공동과 교월동 기록화 사업 결과가 담긴 기록집을 관내 기관 및 지역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통방식 이색한방체험 '전국 유일'

완주 구이 안덕힐링체험마을 '웰니스 관광지' 재선정

완주군 구이면의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 에 재선정됐다.

27일 완주군은 지난해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구이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이 그간 운영 실적과 향후 발전성 등 평가를 거쳐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웰니스 관광지는 자연·숲치유, 힐링·명상, 한방, 뷰티·스파 등 4개 테마로 여행을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체험관광 트렌드에 맞춘 우수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선정된 추천 웰니스관광지 34곳을 대상으로 학계 및 업계, 여행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총 25곳을 재지정했다.

구이 안덕마을은 농촌마을에서 전통방식 이색한방체험이 가능한 전국 유일한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는 테마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지정으로 안덕마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과 여행상품 개발, 외국 관광객 수용역 개선 등의



완주군 구이면의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 에 재선정됐다. 구이 안덕마을은 농촌마을에서 전통방식 이색한방체험이 가능한 전국 유일한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는 테마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안덕마을은 대표 체험상품인 한방진료·진맥, 숙면체험 전통구들방식으로 10여 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황토 한증막과 옛 금강동굴 냉탕 체험 등을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100여명이 묵을 수 있는 황토방 등 19개동 숙박시설과 회의실,

식당 등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어 마이소 관광분야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의 청정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이 되는 건강한 도시, 편안한 여행자가 될 수 있도록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 로컬푸드사업 다각화 통합 워크숍 성료

2019년부터 4년동안 시행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단장 최승일)은 27일 동진제농협 급구 직매장 2층 교육장에서 막거리활력과 및 사업단 경영체 동진제농협, 공덕농협, 로컬푸드 출하회 등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으로 시작한 로컬푸드사업 다각화 마무리 워크숍을 추진 하였다.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은 김제시와 함께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19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로컬푸드를 품목으로 선정되어 30억 예산을 가지고 4개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로컬푸드 통합물류센터, 저온저장시설 등 시설을 구축하고 농가조직화, 통합마케팅, 문화장터 등 로컬푸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워크숍은 김제시와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이 4년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사업단의 향후 지속성 확보 방법 토론회 후속 사업 준비, 기금 협약식 등 김제 로컬푸드사업 다각화 사업의 성과와 향후 미래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승일 사업단장은 "4년동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경영체, 농가, 로컬푸드 소비자께 감사하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를 사업단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복 막거리활력회장은 "지난 4년 동안 김제 로컬푸드를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며 "김제시도 로컬푸드 활성화와 사업단의 지속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